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제 89호

順天金氏宗報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2016.12.30 (금)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인:김영규/편집인:김범재 / <http://www.schkim.co.kr> /056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백제고분로 21길 24 삼전빌딩 2층/전화(02)400-2501 / FAX(02)400-2505

밝아오는 丁酉年(정유년)은 위기를 기회로...

丁酉年(정유년)은 宗員(종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 부자 집에서 급게 성장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와 친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가 제일이라고 매일 친구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사이에 가세는 기울고, 거기다가 부모님까지 유명을 달리하니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조차 치를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했던 친구들은 중적이 보이지 않아 망연자실 하고 있을 때 홀대만 받던 형제자매와 친지들은 소식을 듣고 함께 초상을 치르게 되니, 늦게나마 혈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늦게라도 깨달아 다행이지만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 알고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요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종친회를 이끌며 항상 느끼는 것은 혈육의 뜨거운 정이 많은 이들을 감동시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엔 필요한 물건을 살 때나 뉴스를 접할 때 종친이 제조한 물건이나 종친의 뉴스에 빠져드는 관심은 우리를 하나로 엮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50~60년대까지만 해도 문맹과 빈곤의 시절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식구들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고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었기에 모든 국민은 정부가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50~60년대에 초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 졸업자가 넘쳐 흐르고 뉴스는 어느 곳에서든 손가락만 움직이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정세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버스가 없어 길가에 검정고무신을 신고 다녀야만 했던 시절은 자가용이나 고속철로 움직이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뒷간에서 변소를 거쳐 변화된 지금의 화장실은 그 시절 안방보다 좋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 화장실조차도 전 세계선진국의 그 어떤 화장실보다도 화려해졌습니다.

50~60년 초반 해도 세상은 폭력배, 상이군인, 문둥이, 거지가 세상에 넘쳐 약자는 뜻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빈곤으로 대다수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이, 빈대, 벼룩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보니 질병으로 몰사를 면치 못하여 동네마다 애장(아기무덤)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았을까요. 이와 같은 현상은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도 없고 국민들은 판단력이 부족하여 나라를 잃고 전쟁으로 잣더미가 되어 정신대, 보국대, 인민군에 끌려가 희생을 당하고 평생을 망쳐도 제대로 보상받는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원인은 단일한 생각의 군주와 민생은 돌보지 않고 당파싸움에 국력을 소모하는 관료들 때문에 나라를 잃어 백성이 깃잡히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지식과 의식구조는 성장했지만 사회 현상은 아직도 5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권을 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의 말과 글들이 민심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특권을 다 내려놓고 평등한 국민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편견없이 법을 집행 할 것이고 국가의 리더가 되는 기관도 현실을 똑바로 보고 국익을 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唯民可畏實事求是(유민가외실사구시)-오직 국민만을 두렵게 여기고 사실에서 진리를 구해야만 합니다.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오직 국민 한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이고 현실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우렁찬 박수를 보낼 것이고, 또한 억울한 국민이 없이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은 행복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전 국민이 함께 경쟁하는 사회가 진행되다보니 발전은 눈부신데 억울한 사람이 점점 속출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믿을 곳은 법밖에 없는데, 법은 편견이 상식화 되고 도덕을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나라가 이상과 비전만을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인간의 삶 속에서 누가 이상과 비전을 싫다 하겠습니까. 허나 아직은 시기상조라 봅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앞길에 국민이 훌륭한 지도자를 편견없이 선택하고,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이 발전하는 미래로 함께하여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면 저절로 국민은 이상과 비전을 갖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역경을 이겨낸 힘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후손에게는 우리가 겪은 과거의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사회가 이 나라를 지탱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친여러분! 우리가 모든 힘을 경주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후손에게 남기고 갑시다!

아무쪼록 정유년 한 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에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회장 김 영규



唯民可畏實事求是

후원금, 회관건립기금 및 대전 뿌리공원 계좌안내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전국 과중회 및 지파회 종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는 중앙종친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원재 정비사업은 당면 과제이고 장기적인 사업에는 중앙종친회 회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시조부군께서 현재 전라남도 지방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가락당 및 관리사택을 이전 정비 하여야만 문화재 관리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원금 일만원 기부 하기 운동과 또한 회관건립 헌성금 중 1구좌당 50만원을 헌성하신 종친은 헌성비를 건립 할 것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국 순천김씨 종원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명실상부한 중앙종친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합심, 단결할 때입니다. 종원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농협중앙회 : 355-0008-1852-43 예금주 : 순천김씨종친회

국민은행 : 478701-01-224098 예금주 : 순천김씨종친회

우리은행 : 1005-001-547913 예금주 : 순천김씨종친회

第 28期 定期總會 盛大히 舉行

순천김씨 중앙중친회는 지난 10월31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시조묘역 동원재 가락당에서 전국 150여명의 중원과 임원진이 참여한 가운데 제28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영규 중친회장은 丙申年 한해도 중원들께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성원해주신 덕분에 중회를 무사히 잘 이끌 수 있었다며 전국 중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금년에 중앙중친회장과 감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 영규 회장과 경남, 정희 감사를 재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인터넷측보 개설에 따른 운영의 규칙이 필요하여 중앙중친회회칙에 보학연구위원회 운영시행규칙을 삽입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제10대 중앙중친회 회장직에 재신임을 받은 영규회장은 그동안 마무리못한 동원재 2차 정화사업인 가락당 이전과 장학회건립을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그동안 중친회 발전을 위해 몸소 보여주신 부산중친회 병모회장에게 전 중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중사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중친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밝아오는 정유년에는 중친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인사 말씀을 갈음했다.

총무이사 범재



<감사 경남중친 위촉>



<감사 정희중친 위촉>



<중앙중친회 10대 영규회장 재임>



<홍보이사 중우중친 위촉>



<병사공파 형섭회장, 감사패 전달>



<총회 전경>

《 乙未年 秋享大祭 奉行 》

병신년 시조부군 추향대제를 2016년 11월 01일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오성 산하의 시조 사적지 공원 묘전에서 전국에서 150여명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에 대종손 금산에 仁煥(인환), 아헌관은 보령에 주남, 종헌관에 대구 두원, 대축에 안산 경남(景南) 서울 동현(중앙종친회 총무이사) 집례로 추향대제를 경건하게 봉행 하였다. 이어서 신라와 고려조를 사신 2세~21세 조상님의 분묘가 실전되어 시조묘 계하에 봉설한 단소에서 초헌관 대전 동원(東源), 아헌관 이천에 용재(龍載), 종헌관 보령에 지섭(志燮), 대축에 안산 경남(景南)로 하여 서울 동현(중앙종친회 총무이사) 집례로 추향대제를 경건하게 봉행 하였다.

총무이사 범재



< 시조고 묘역 >



< 상계조 추원단 >

《 양경공 諱 承靈祖 시제 》

2016년 11월 2일 11시 수요일 (음10월 3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원당리 24 소재 양경공 묘소에서 종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 한철(중손), 아헌관 도연(문경), 종헌관 상실(해남), 축관에 동원(대전)과 춘희 충청공회장과 광석(김포)종친의 집례로 숙연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음복과 오찬 후 정기총회를 규장 종친의 사회로 진행하고, 동석 양경공 대종회 회장 인사말에서 오늘날 전종원이 이와 같이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종친간 화합하고 서로 화친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나 대전 뿌리비를 세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고 하시며 종친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였다. 이어 결산보고에 규장종친, 감사보고에 동선, 남호, 수지결산 후 자산 81억 2천만원(공시가 기준) 예산 1억3천만원 심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기타도의에서

- 1. 중손 한철이 총무직을 겸하였으나 이제 총무직은 그만두고 중손 역에 최선을 다하라.
- 2. 종사를 받들고 봉사 할수 있는 총무를 선임(지명)할것이다.
- 3. 중손 예우로 현재 50만원에서 50만원을 더 지불하도록 하자. → 이를 위해 예산600만원을 책정하였다.
- 4. 지금 총무를 추천 받는다면 은한종친(감찰공파)을추천하였으나 이안은 회장이 임원진과 협의 한다.
- 5. 묘역에 멧돼지가 출몰하여 보호망 안을 냈으나 보류함.
- 6. 묘소 진입로 변 측백나무 전정 은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키로 함. 이상 위 안전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회장이 다시한번 더욱 열심히 종사에 힘쓸 것을 선언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宗務理事 東鉉



《전서공 휘 을재(乙財)祖 추향제 봉행》

지난 11월24일(음력10월03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서리 오성산하의 사적지 공원 묘전에서 고려조 호조전서를 지내신 典書 公祖와 子이신 전직공 휘 오, 孫이신 영주공 휘 석손(碩孫),曾孫 이신 호조판서 휘 회(淮) 4배위의 추향제를 초헌관에는 서울 호재(廣載), 아헌관에는 홍재, 전서공중회장, 종헌관에는 병갑(溢載), 축관에는 봉재로 하여 범재(範載) 집례로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총무이사 범재



《 협천공 諱 允濯祖 추향제 봉행 》

2016년 11월 4일 11시(음10월5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산28번지 소재, 강릉부사공 휘윤탁 조 추향제를 초헌관 동홍 아헌관 상선 종헌관 영규(중앙종친회 회장) 축관에 동영. 상석 집례로 종원 40여명이 참석하여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특히 중앙종친회장과 병사공파 형섭회장이 참석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셨고 지파인 본회에까지 참석하시어 감사 드린다.

宗務理事 東鉉

《 同源齊 始祖墓 參拜 》

2016년 10월 28일 절재공과 주부공 문중 중원들이 2016년 시조 시제일을 3일 앞두고 시조묘에 참배 하였다. 중앙종친회 상임고문 학원, 주부공문중 회장 명원, 부회장 부원, 총무 동원, 부총무 창원 등, 30여명 중친들이 함께 했다.

총무이사 범재



《 김종서장군 문화제 행사 》

2016년 10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절재공 묘역에서는 제 4회 김종서 장군 문화제가 많은 세종시민, 학생, 우리 순김 중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먼저 절재공 묘소에서 제사를 올리고, 이어 행사장에서 세종시장 이춘희, 정무부시장 홍영섭, 문화제 추진위원장의 축사와 격려사, 추진 개회사가 있었다. 장군면 체육회, 김종서장군 선양회, 장군면 자치위원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절재공조의 위업을 기리는 영상대학 학생들의 김종서장군 주제극 공연이 많은 박수와 갈채 속에서 펼쳐졌다.

중식 후, 제 2부 행사로 이어졌고 절재공 가훈·휘호 쓰기 체험행사, 경찰국악대 공연 등, 여러 축제의 행사가 이어졌다. 우리 종친회에서도 중앙종친회 영규 회장, 학원 상임고문, 경남 감사, 절재공파 기석 회장, 장원 부회장, 주서공 문중 병석 고문, 병사공 문중 명섭 전회장, 형섭 회장 등 20여 명의 중친이 참석하였다. 문무겸전의 절재공조를 추모하고 위업과 얼과 한을 되새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상임고문 학원



《 참의공 諱 有溫祖 주향제및 정기총회 》

2016년 11월 12일 10시30분 일요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入鄉始祖 참의공 묘전에서 중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 한철(22대중손 광주), 아헌관(동영 참의공파 회장 대구), 중헌관 경남(중앙종친회 감사 안산), 축관에 병준(문경), 도연(문경)중친의 집례로 경건하게 시향제를 봉행하였다.

통훈대부 선공감 판사공 휘 원석 이하 22祖에 대하여 국담정사 위패합사 시향제를 형섭(상의원정공 예하 병사공파 회장 안산)의 집례로 수헌, 한철(중손), 아헌, 영규(중앙종친회장 안산), 중헌, 정걸(안동), 축관에 규장(서울)으로 엄숙하게 봉행하였으며, 음복을 통하여 기경에서 참여한 중친들에게 감사하다는 동영회장의 감례로 예필하였다. 조상이 내려주신 오찬과 음작은 時節因緣으로 百代之親함으로서 兄弟愛의 기감은 먼 곳일지라도 한 무릎아래 일가가 이 아니라 하겠는가.

참의공파 정기총회는 총무 중친의 사회로 개최하고 현조에 대한 묵념을 마치고 동영 회장의 인사에서 지난 6년동안 여러 중친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지금의 중친회가 있었다고 술회하고 감사함을 표한 후 임원개선으로 선임되는 회장에게 더더욱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이어 중앙종친회장 격려사에서 중앙종친회의 운영에 어려움을 피력하고 하계 대학생수련회, 뿌리공원의 유래비, 인터넷 족보를 성공적으로 이뤄 낸 것은 순김의 저력이며 또한 기본이라고 하시며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다.

감사보고에 이은 결산보고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임원개선을 위한 임시의장을 도연(문경)중친을 지명하고 규장중친이 용희(양경공 20대손 서울 중친을 추천하니 전 중친이 박수로 화답하여 선임하였다. 감사는 전임자 병준 중친, 수만 중친이 연임하고 총무에 동섭(양경공 19대손 안동)으로 지명하였다. 신임회장 용희중친 인사에서 전임 회장님의 노고는 참으로 크고 본 받아야 된다고 하며, 참석자 전원 박수로 감사를 표하였다. 본인은 참의공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 물심양면으로 중친들의 성원을 부탁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傳書 김동섭(시조41대 참의공파 총무)
宗務理事 東鉉



《 병판공 諱 粹濂祖 주향제 》

2016년 11월 6일 9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성석리 선산 및 덕유재에서 입향시조 諱 수렴 이하 14조의 합사(위패)제를 중원 약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향제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휘 수렴(증 자헌대부 병조판서행 통정대부 정주목사 겸 진관병마절제사공, 배위 정부인 풍산홍씨) 묘사, 초헌관 수경(중손) 아헌관 영규(= 규남, 중앙중친회장), 종헌관 상혁(최고령자) 축관에 대연과 총무 수정의 집례로 모셨다.

이어 諱훈(증 승록대부 의정부좌찬성겸 지의금부사 행 통훈대부성현찰방공 배위 정경부인 신천강씨)묘사, 諱지(증 자헌대부 병조판서겸 동지의금부사행 경상좌 병마절도사 배위 정부인 파평 윤씨)묘사, 재실(덕유재)위패 봉안 합사 시향제를 초헌관 수경(중손), 아헌관 대연(직계 후손), 종헌관 수옥(직계 후손), 축관에 대연중친이 수정중친의 집례로 모셨다.

傳書 김수정 (병판공과 총무) 宗務理事 東鉉



《 諱 粹濂(증 병조판서)祖 묘소 관련 說話 》

김보연 說話情談

병판공 휘 수렴조 배위 정부인 풍산 홍씨의 친정아버지께서 逝去하시자 친정 어른들이 사랑방에서 묘 자리가 명당이라며 이 자리에 묘를 쓰면 3,4대 후에는 영상이 배출될 자리라는 것을 들으시고는 얼른 시집의 하인들을 데려다 이미 파놓은 壙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산57번지)에 밤 새워 물을 가득 퍼다 부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친정 식구들은 묘실에 물이 차있는 것을 보시고는 물이 나는 자리에 어른을 모실 수 없다며 급히 다른 곳에 求山하니 昨今の 성석동(진밭) 뒤편 선영에 모셨다고 전해 온다.

그 이후 공(증 자헌대부 병조판서 휘 수렴)이 逝去하시자 친정오라버니를 찾아가 “이 산(묘터)을 내게 주시오” 하니, 오라비 曰 “그곳은 破壙中한 곳이라 못 쓴다” 하니 “이 동생의 분깃으로 주시오!” 하며 여러 말로 애원하므로 “허허허 하는 수 없구나. 네가 이처럼 때를 쓰니 후에 다른 말 말거라” 하며 현재의 묘전(120여평)을 받아 공을 모셨다고 한다.

그 후 아들 휘 훈(증 승록대부 의정부좌찬성) 손자 휘 여물(증 순충적덕겸 의보조공신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순창부원군 증직) 증손 휘 류(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승평부원군 인조반정 정사1등훈. 시호 북저공) 북저공은 인조대왕 당대에 영의정을 3번 역임하였다.

고손 휘 경징(자헌대부 한성판윤 시호 순흥군 癸亥第(인조 반정)정사 훈 등이 줄을 이어 등극하였다. 병판공 諱 수렴의 배위 풍산홍씨의 父祖에 대한 勳舊精神은 설화에 그치지 아니하고 널리 전하고, 入 鄉始祖 以下 桑梓之鄉하니 후손은 이를 본 받아야 할 것이다.

본 이야기는 우리 문중에만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풍산홍씨 집안에서도 전해오는 이야기이며 성석동에 있는 풍산 홍씨 문중에서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풍산홍씨 시조 홍지경의 배위가 순천김씨이며, 풍산홍씨 집안과 깊은 인연이 있음을 사적 연원으로 살펴보았다.



說話情談 김보연 傳書 김수정 宗務理事 東鉉

이 사람

병판공 휘 수렴 추향제에 중앙중친회 회장님을 모시고 다녀왔다. 약 60여 중친이 참석하여 祭를 지내는 동안 엄숙하고 물이 흐르듯이 잔잔히 행하는 모습은 마치 조상님의 훈정을 느끼는 듯 하였다. 특히 봉작 전작 집사 집주의 역할을(사진)잘 수행하는 두 젊은이를 눈여겨 보고는 참으로 병판공 중증은 앞날이 밝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동현: "이렇게 집사 일을 잘하시는데 어떻게 잘 할 수 있나?"
- 수향: "3, 4년 정도하였습니다. (보연의 자, 시조40대) 별로 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동현: "이렇게 젊은데 하시기 쉽지 않은데..."
- 성향: "부모님(수연의 자, 시조41대)께서 시키셨고, 나 자신도 이렇게나마 조상님 받드는 게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동현: "앞으로 중증이나 조상님 모시는데 더 열심히 할 계획이신가?"
- 수향: "예! 친지 어른들께 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 동현: "나는 자네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 오면 중앙중친회에 꼭 들려 주시기 바란다."

이후 기념으로 덕유재 재실앞에서 사진 한 컷 하였다. 이처럼 각 지파 회장님과 중증은 후진 양성과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宗務理事 東鉉



《 증정공 諱 有讓祖 묘사제 》

2016년 11월 3일 11시, 경기도 여주시 가남면 연대리 218-2번지 증정공 휘 유양 할아버지 추향제를 초헌관 춘희(증정공파 회장 임실), 아헌관 범재(중앙종친회 총무이사 이천), 중헌관 동욱(신천공파 회장 고양), 축관에 남호(서울)와 동진(횡성공파 총무 대구) 종친의 집례로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이어서 감찰공 휘 사홍 할아버지 묘사제를 드리고, 계속하여 상의원정공 휘 사원 할아버지 추향제는 초헌관 명섭(상의원정공 종손 수원) 아헌관 동현(중앙종친회 총무부장 서울) 중헌관 상응(신천공파 전회장 고양) 축관에 동진(대구) 춘희 회장의 집례로 정성을 다해 모셨다. 음복과 오찬을 마친후 개최된 증정공 중회 정기총회에서는 선조에 대한 묵념을 드리고 춘희회장은 종친 일가들의 건강과 무사함을 기원한다는 인사가 있었다. 경과 보고에 이어 명섭, 동진이 감사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결산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기타토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 1. 사택의 보존등기는 특조등기 기간에 하기로 한다(후임자에게 인수인계)
- 2. 안내 표지판은 회장단이 승인 절차를 거쳐 설치한다.
- 3. 2004년도 묘역정화 사업과 재실 신축시 당시 추진 위원장이었던 중재에서 1700만원을 횡령하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으로 발표하던 회장은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의 사과가 있기 전에는 중무를 보지 않겠다고 함.

이상 오늘날안건을 모두 심의 의결하였기에 폐회를 선언하다.

宗務理事 東鉉



《 증정공계 신천공 諱 允浩祖 추향제 》

2016년 11월 6일(음 10월7일) 9시 30분, 고양의 入鄉始祖 통훈대부행 신천군수 諱윤호 배위 고령박씨 추향제를 초헌관 상유, 아헌관 상오, 중헌관 용연, 축관에 서연, 그리고 동욱의 집례로 신천공파 종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특히 이날은 날씨도 화창하여 先憂後樂하는 듯 근심 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길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겼던 공의 薰化가 祭禮後 飮福으로 이어져 오는 듯 하였다.

이어 절충장군행 용양위부호군 가선대부 휘 자문-득룡-우량 - 약 - 락祖의 초헌관 동욱 아헌관 상심, 중헌관 상덕, 축관에 동선, 그리고 서연의 집례로 이하 八世조까지 차례로 추향제를 드렸다.

傳言 동선(상의원정공 회장)
宗務理事 東鉉



회비 입금 현황 (인명부록)

(2016 9 25 ~2016 12 23)

- * 회관건립 후원금 - 회관건립 헌성금비건립 (50만원이상)
- * 회비 납부시 지로용지에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 기재가 안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10)

1. 10-12 김정수 (경기 가평)
2. 11-17 김보연 (부산 남구)
3. 12-07 김동훈 (경기 의왕)

(30)

1. 10-24 김동운 (경북 문경중친회 회장)

(10)

1. 09-19 김안천 (전북 완주)
2. 10-04 김두원 (대구 호산문중 회장)
3. 10-26 김광주 (전주 완산)
4. 11-23 김동은 (대구 북구)

(3)

1. 09-21 김동이 (울산 중구)
2. 09-30 김상선 (충남 금산)
3. 10-05 김기연 (충북 청주)
4. 10-05 김봉각 (경기 용인)
5. 10-05 김채연 (인천 서구)
6. 10-06 김명 (경기 양주)
7. 10-12 김동석 (경북 성주)
8. 10-18 김홍연 (경기 파주)
9. 10-26 김종두 (전남 여수)
10. 11-02 김형호 (전북 순창)

11. 11-03 김광연 (서울 영등포)
12. 11-04 김정관 (경기 평택)
13. 11-22 김종원 (경기 양주)

1. 10-04 무기명
2. 10-17 무기명
3. 10-21 무기명

회비를 납부하였는데 기재가 안되었으면 무명인 란을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영규 - 200,000
2. 김경남 (안산) - 50,000
3. 김석재 회장 - 100,000
4. 김두원 회장 - 100,000
5. 김윤섭 회장 - 100,000
6. 병사공과 - 200,000
7. 충정공과 - 200,000
8. 신천공과 - 200,000
9. 협천공과 - 200,000
10. 어사공과 - 200,000
11. 상의원정공과 - 200,000
12. 판서공과 - 100,000

13. 부산중친회 - 100,000
14. 구암공종회 - 200,000
15. 호산문중 - 50,000
16. 대전충남중친회 - 100,000
17. 대전충남청년회 - 100,000
18. 가명호조 - 50,000
19. 임실계곡공 - 100,000
20. 절재공과 - 300,000
21. 양정공과 - 200,000
22. 종목회 - 100,000

◆헌성금 입금 (매 월 십만원 자동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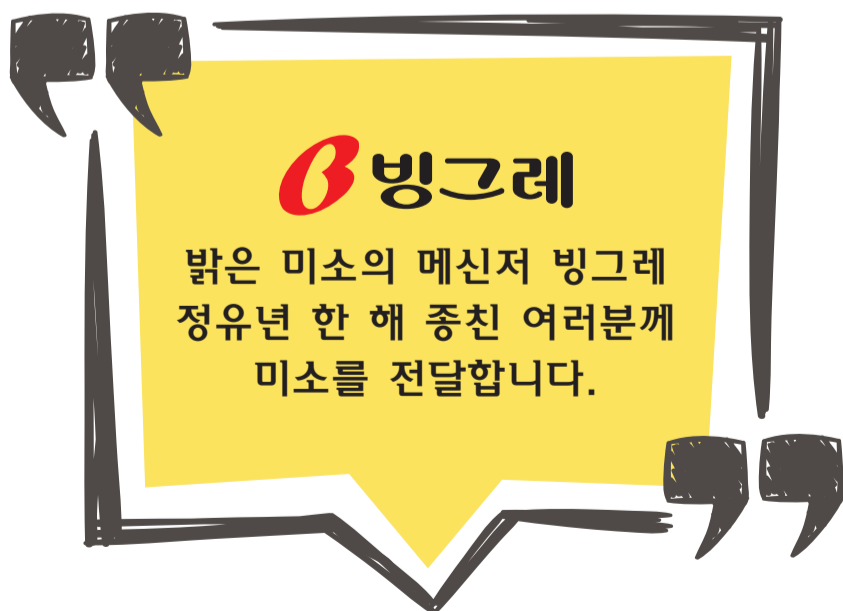
1. 김인환 (충남 금산)
2. 김장원 (인천 부평)

◆헌성금 입금 (매 월 오만원 자동이체)

1. 김경열 (경기 고양)
2. 김창희 (경북 구미)

◆헌성금 입금 (매 월 만원 자동이체)

1. 김상실 (전남 해남)



중친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http://www.schkim.co.kr>